

고추장의 대명사 순창고추장의 원산지인 만일사(萬日寺)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이 만일사가 순창군에 의해 복원되고 있다.

맵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알싸하고 단맛에 개운한 맛이 감돈다는 순창 전통고추장. 물맑고 공기좋은 곳에 사는 순창사람들이 정성스레 빚어낸 전통고추장 탄생의 진원지인 회문산 만일사(주지 지성·선운사 회주)가 역사유적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가고 있다.

백제 무왕(613년)에 건립했다는 만일사는 고려말 나옹선사가 제자 무학대사와 중창한 가람이다. 현재는 6.25당시 남로당의 최후 격전지였던 까닭에 모두 불타고 1954년 중

순창고추장의 유래지인 만일사가 복원돼 역사의 숨결을 살린 테마관광지로 개발될 계획이다(사진은 만일사 전경과 비석).

고 그 맛을 잊지 못해 왕이 된 후 진상토록했다. 이때부터 비로소 순창고추장이 명성을 드날리게됐다.

순창군청은 지난해 고추장의 학술·문화적 가치를 지닌 만일사에 5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당(16.73평) 비문보호각(2.72평) 일주문(1.96평) 요사채(13평)를 복원하고 있다.

만일사 입구에는 판독불명의 비



하는 비개석으로 반달모양인데 높이가 53cm이며 비신두께는 12cm이다.

한편 순창군은 읍내에 1백40억원을 들여 60여가구가 들어서는 고추장 민속마을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관련 순창군청 조동호 공보실장은 "고추장 박물관과 전통식품연구회를 통해 역사적인 검증과 품질개선을 통한 순창전통고추장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며 "만일사와 연결하여 역사의 숨결을 살린 테마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김원우 기자

'순창고추장' 유래지 만일사 복원

무학대사 1만일 기도도량... 입구비문엔 고추장 진상유래

건원 인법당 요사채 칠성각만이 사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사라는 명칭은 무학대사가 이상계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자 1만일 기도정진한데 유래했다. 이상계는 등극하기전 기도중이던 무학대사를 찾아오다 절 밑 농가에서 접심으로 고추장에 보리밥을 비벼먹



순창 전통 고추장 기능인 안인영씨(오른쪽)가 고추장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석이다. 이 비석은 원조고추장의 해법과 고추장의 유래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돼 만일사 복원불사에 결정적인 계기가된 명물.

원래 몸부분 비신이 3등분으로 파손돼 방치됐던 것을 1978년 시멘트로 붙여놓았다. 비석의 비문은 비바람에 마모돼 거의 판독이 불가

능하나 상단부에 '太祖' '無學大師' 등의 문구가 뚜렷하다. 순창군청은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해독을 의뢰할 예정이며 주지 지성스님도 이 비문을 재해석하여 판독에 고심하고 있다. 이 비석의 구조는 맨 하단부는 자연석 비대석과 높이 172cm 비신, 맨위는 머리칼에 해당

순창고추장 맛의 비법

순창전통고추장 기능인 안인영씨(진상고추장 대표·대모암 신도)는 시어머니에게 전수 받은 고추장 제조비법을 통해 지난 80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안씨로부터 순창고추장 제조비법을 듣는다.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인 3월까지가 십씨 15도 이하의 기온이 유지되므로 이 기간에 담가야 당도의 속도가 느리고 유산균의 번식이 느려 신맛이 생기지 않는다.

3년이상된 묵은 간장을 이용하며 약간의 소금만을 사용한다. 또한 방부제 색소 화학조미료 설탕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 것이 맛을 길게하는 요인이다.

3년이상 묵은 간장 이용

만들기 ① 색깔이 고운 초콜 두물고추장을 잘 말려 가루로 빻은후 참쌀을 시루에 찌서 된밥으로 만들어 절구통에서 반죽해놓은 메주와 고루 잘 섞는다. ② 도너츠형으로 만든 떡메주를 여름철인 8-9월에 띄우면 곰팡이의 생육이 가장 활발한 26-29℃로 갖추게 된다. 이에따라 단백질의 분해효소와 당화효소가 풍부하게 생성되어 고추장의 특유한 감칠맛을 내게한다. ③ 만들어진 고추장은 장독에 담아 햇볕에 내놓고 나무주걱으로 위 아래를 저어주어야 골고루 발효되며 윤기가 흐르게 된다. ④ 만들어진 고추장은 6개월정도의 숙성을 거치는 것이 좋다.

심신의학 "마음으로 병 다스린다"

명상등 불교수행법 현대의학 한계 돌파구

정신·육체 조화 질병치료 노화방지 효과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생기고 또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심신의학이 연구 개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질병자체의 치료에만 집착해 온 서양의학과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제3의학으로 불리는 이른바 '심신의학(心身醫學·MIND BODY MEDICINE)'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환경까지를 포함한 총체적 조화로써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전 분당 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심신의학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데이비드 사이먼 박사(美 샌디에고 초프라센터 소장)는 심신의학은 인간의 의식을 우주의 1차적인 힘으로, 육체적 변화는 에너지와 정보의 2차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인체양자역학

이론'이 그 간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세포를 세분해 양자의 크기가 되면 정신과 육체는 일체화된 하나의 에너지와 정보흐름에 의해 지배되며 이흐름의 조정과 광명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함께 설명해서 심신의학은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 영양과 음식물의 균형, 명상, 운동과 요가 등의 근육 이완법 등을 통해 생체리듬을 조절함으로써 암 등 악성질환의 치료는 물론 노화방지를 통해 인간생명을 연장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명상. 명상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절대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발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

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을 주관한 차병원의 통증클리닉 최윤근 소장은 "심신의학은 마음으로 인해 병이 생기고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근본이론으로 하고 있다"며 "불교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새로운 의학이론"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먼 박사가 제시한 심신의학 치료사례를 보면 2천여명의 명상자 건강검진 결과 장기간으로 명상하는 사람에서 19-39세 사이에서는 54.7%, 40세 이상에서는 73.3%가 일반인보다 병원을 덜 찾았다.

심신의학은 현대의학의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의학이론이나 불가사리는 옛부터 알려진 치료법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한영우 기자

백은선사의 건강비결

일본 백은(白隱 1685~1768)선사는 오백년 불출(不出)의 위인으로 불리워지는 선사다.

중병치료를 건강유지를 위해 '내안의 비법'과 '연소법'을 고시한 선사는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강조했다. 마음을 바르게하여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정념을 지키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 ① 마음이 괴로할 때에는 신체의 각 기관이 약화되고 마음의 불꽃(火氣)이 솟아올라 쇠약해진다.
- ② 조그마한 병을 증병으로 여기고 근심하지 말라.
- ③ 많이 근심하게 되면 점점 열이 오르게 되고 내장은 아픔으로 굳어져 생명의 뿌리도 보존하기 어렵게 된다.
- ④ 병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망념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 ⑤ 알뜰하고 간교한 지식나부랭이와 욕망과 야심을 놓아버리고 무념 무상 무심하라.
- ⑥ 소이를 버리고 부처님께 모든것을 맡겨 자연 그

대로의 마음을 유지하라.

- ⑦ 욕심을 없애 집착을 떠나고 심신을 비우게 되면 현묘한 기·진기(眞氣)·천지의 생기가 외부로부터 빈 마음으로 들어온다. 이 생기를 보존하면 병마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 ⑧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원기를 전신에 순환시키려던 한학자 밀실로 들어가서 이불을 펴고 위를 보고 누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심기를 단전에 밀어넣는다. 그리고 콧뒤에 부드러운 새털이 붙어있다고 상상하고 그 새털이 점점 미동하지 않게 조용히 호흡하기를 3백번 한다. 그렇게 하면 장수할 수 있다.
- ⑨ 반드시 공복을 느낄 정도로 식사하고 피로하기 전에 휴식한다. 배가 약간 고평때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가 단정히 앉아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호흡하는 횟수를 센다. 하나에서부터 천까지 세면 이 몸이 마음은 적연하고 물연하게 천지와 함께 융해된다. 그러면 스스로가 천지에 가득차고 널리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 ⑩ 정념코 정념(正念)공부보다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은 없다.

만화

백야경

이향원

재물 때문에 형이라 부른 사람

옛날 지혜로우며 외모 또한 훌륭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찬양했다.

저분 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없지

마음만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아는것도 많은 분이시

재물이 그렇게 많지도 으시대는 법도 없고

정말 존경 받을 만한 분이시

재물이 많고 마음이 너그러우니! 그렇다면... 내가... 허헛

재물에 눈이 어두운 어리석은 자는 그에게 형님이 되어 주길 간청했다

뜻밖에 좋은 아우님이 생기다니! 나도 형님 도리를 다 할테니까

무슨 일이든 의논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말하게나

형님! 감사합니다

저의 바램이 있다면 부자가 되어 아우된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만... 믿천이 없어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아우님의 마음이 그렇게 다면 장사한 믿천은 내가 주겠네

아이고 형님의 은혜 하느라 감사합니다

그후 그는 뜻대로 부자가 되었다

형님! 자네 형님이 소식 들었다고 궁급해 하시네

형님! 흥!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진과 형이 아닌자를 내가 왜 형이라 부르겠소

이것은 외도들이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빌어 빌어쓰다가 그대로 수행하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이양(利養)을 위해 부처의 말을 빌어 중생을 교화 하지만 실제의 사실이 아닌데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해 남을 형이라 부르다가 소용없게 되자 형이 아니라 하는 위선자와 같은것이다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6cm x 7.5cm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보급방법 :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 크기 3.5cm x 10.5cm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천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 ★ 장타력, 집중력, 판단력, 골프머리가 잡혀갑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효율성 96.9%
심장질환자	92.9%
기혈결핍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

※ 약이 의학용어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레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우편판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